

2/8(화) 스가랴 묵상 9

스가랴 5:5-1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7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에바와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의 내용으로 에바는 이스라엘에서 추수 때 널리 사용되던 그릇 모양의 바구니를 뜻합니다. 이는 민족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바 속의 여인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엇인가를 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에바 그릇이었는데 그 크기가 곡식을 담는 보통 크기의 에바와는 달라 보였습니다(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 에바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 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에바 속의 여인’은 ‘유다의 죄’를 뜻합니다. 왜 에바 속의 여인을 ‘악’으로 상징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세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첫째로, 히브리어로 ‘악’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인화 시켰다. 둘째로, 악이 우상숭배를 뜻하는 것으로 당시 우상숭배는 주로 이방 신당에 있는 여성과의 ‘행음’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당시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했다. 학자들은 이 세가지 견해를 모두 적절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에바의 크기’는 ‘유다가 지은 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죄가 에바로 표현된 것’은 아마도 유다 백성의 죄가 아모스 8장에 나온 것처럼 에바를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암 8:5,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밭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학개서 말씀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이 멈추었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전 재건도 뒷전으로 미룰 채 과거의 죄를 답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까지 완성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느 13:15,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8절에서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는 것은 그 에바를 덮는 둥근 납으로 된 뚜껑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덮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여인과 에바

9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눈을 들어 볼 때에 또다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9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9절의 두 여인이 에바 속에 있던 한 여인과 다른 것은 그들은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가 있었습니다. 이 날개는 ‘그 한 여인이 들어있는 에바’를 들어서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두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은 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과 같은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도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수행한 일은 그 에바를 이스라엘 땅에서 시날 땅으로 들어서 거처를 옮겨 놓게 됩니다(10-11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에서 시날 땅 즉 바벨론 땅으로 옮기시겠다는 것으로 이는 그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시 103:10-12,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죄는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도 또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를 위한 짐승을 가지고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모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죄책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거듭난 신자가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은 게으름과 싫증이 나타나고 또 타락한 상태와 같은 죄도 때로는 서슴치 않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복음의 자유와 주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삶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 땅을 위한 기도:** 미국과 나토 연합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베이징 기간이나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최소 5만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도 흘러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 위기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Youth Group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탄자니아 박재덕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